‘안정 usb’ 없애면 위기도 준다

(시편 31:1~24)

9.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11.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2.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13.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14.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안정 usb' 없애면 위기도 준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안정 usb' 없애면 위기도 준다.
usb(universal serial bus)는 이동식기억장치로서 아주 작지만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그 안의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됨을 저장할 수 있는 ‘안정 usb’라는 장치가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그런 장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비유적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안정 usb를 없애면 위기는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주어지는 이유는 삶의 곳곳에 안정 usb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 삶에서 안정된 시스템을 깨뜨리기 위해서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정된 usb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위기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신앙에는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환란 곤경 문제 등에 처할 때마다 신앙인답게 잊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막히게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윗도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환란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보통 때에는 잘

찾지 않다가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신앙인의 최고의 이상적인 삶의 상태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아도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곧 위기와 환란과 곤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가 돈을 벌듯이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벌고자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바라는 최상의 상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마치 병과 약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약과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상태는 일평생 병원에 가지 않는 상태일 것이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일 것입니다. 약과 병원과 의사들은 필요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귀중함을 강조하더라도 최상의 상태는 그것들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지만 최상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괴망측한 역설이 신앙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원죄가 지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삶이 이러한 역설과 모순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의 체질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밖에서 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에덴 밖은 곧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기쁠 수 있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원죄적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인들조차 원죄적 체질에 지배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못 살 때에 “잘 살아보세”라는 기치를 내걸고 새마을운동을 하였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모토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인은 1,20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주일성수를 하는 교인의 숫자는 3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무서운 일입니다. 대형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대형교회도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다면 교회는 대형이나 소형으로 구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하면 크고 많은 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성공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큰 교회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언젠가는 이런 성공이 자신에게도 허락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원죄의 체질에 지배되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200만 명이라는 교인 숫자도 다 거품이고 허수일 뿐인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태는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어도 하나님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곳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먹고 살 것도 없고 돈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배부르겠다고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하나님은 가난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한 약이셨습니다. 당연히 가난이 사라지는 치료의 단계가 완성될수록 약으로서의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죄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안정을 체질적으로 추구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역사적 배경은 알 수가 없지만 또 위기에 처한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 이 시에서 위기에 처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압살롬의 사건도 아니고 사울에게서 쫓기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처절한 위기에 있음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지만 자기 힘으로 이룬 일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에도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에도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왕이 되어서 유대민족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추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토를 확보하면서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완전한 통치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이러한 안정적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방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전쟁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노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인 삶을 산 다윗이 오늘 본문의 9~10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라고 합니다.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라는 말은 평생을 슬픔으로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슬픔으로 기력을 소진하고 있다는 뜻이고 ‘나의 연수’라는 말은 나의 시간을 뜻합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안정된 삶의 조건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했던 다윗도 끊임없는 위기를 겪어야만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끊임없는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를 깊이 묵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일이 나오는데, 9~10절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앞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노래를 했던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잿더미 위에 앉아서 악창이 난 몸을 기왓장으로 긁으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욥의 영이 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원죄의 체질을 따라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없어도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려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정을 저장한 usb를 삶의 곳곳에 확보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깨뜨리시

기 위해서 계속하여 위기를 주십니다.
다윗처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생의 안정적 조건을 다 구비한 자에게조차 끊임없는 위기로 몰아치심으로서, 성군이라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원죄적 체질로부터 구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원죄의 체질에 끌려서 안정을 구축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안정 usb를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이 안정 usb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삶의 위기의 횟수는 줄어들게 되고 위기가 나타날 확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안정을 추구하려는 것이 원죄의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저는 평생 허리를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 반 대항 축구대회에서 선수로 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와서 당시 경성 중학교의 운동장이 진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미끄러웠습니다. 다리가 엇갈리며 넘어졌는데 그 때부터 허리에 디스크 증세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이라도 등산을 하는 이유는 등 근육을 강화시켜서 고통을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치아는 허리와 반대입니다. 독일에서 치과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때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상한 이가 없습니다.
제 치아는 건강을 저장하고 있는 usb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원죄의 체질에서 갖게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을 저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 중에는 70세가 되셔도 얼굴에 티 하나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피부건강을 저장한 usb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삶에 안정을 저장한 usb는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은행에 큰 돈이 들어있다면 그것이 안정 usb가 됩니다. 이제 노후를 함포고복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usb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안정을 저장한 usb를 깨뜨려나가십니다. 대체 왜 깨뜨리셔야 한단 말입니까? 앞서 치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진리를 말하자면 제 치아가 썩지 않는 이유는 치아에 건강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순간도 예외 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건강이 흘러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가 내일 아침에는 전체가 다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치아를 안정 usb로 믿고 생활하게 된다면 언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허리 때문에 기도해본 적은 많지만 치아 때문에 기도해본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삽니다.
이런 신앙을 십자가 생활화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돈 벌겠다고 아우성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성만큼이나 하나님을 벌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할 때에 하나님을 벌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이것이 십자가 생활화의 효과입니다. 건강한 치아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건강을 흘려보내주고 계심을 기

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는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결혼할 때에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사랑을 믿을 지언정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로 결혼하기 때문에 3년도 못 되어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죄가 지배하는 부부관계에 대해 위기를 초래하신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매 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참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우자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원죄의 체질입니다.
다윗은 생의 모든 안정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위기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안정적 조건을 갖췄다고 믿으며 usb에 안정을 저장하고 싶을지라도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위기를 주셔서 깨뜨리실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0절을 보면 계속해서 비슷한 어휘가 반복되다가 돌출되는 맥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라는 부분입니다. 죄라는 말이 나왔지만 앞뒤로 그 죄를 회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죄가 바로 세상에서 끊임없이 안정된 영역을 확보하고 안정을 저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인해서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함을 뜻하는데 하나님을 가지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의 위기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확인하려는 모든 순간들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른 곳은 약할지라도 치아만큼은 건강하다는 생각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안정을 추구하고 확인하려는 마음이 작동할 때마다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삶은 하늘에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은혜로만 가능함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안정도 불가능함을 깨달을 때에, 세상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삶의 어떤 영역도 하나님 없이 안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밖에서의 삶의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이 체질의 발현을 끊임없이 죽여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삶의 모든 부분마다 안정을 저장하는 usb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생활화로 그 모든 바람들이 타파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하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